

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목적 자체로서 존재한다. 만일 어떤 존재가 이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존재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만 지닌다.</p> <p>을: 모든 '삶의 주체'는 미래에 대한 의식, 선호와 복지에 대한 이익관심, 정체성 등을 지닌 개체이므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p> <p>병: 모든 유기체 각각은 자기 방식대로 고유의 선(善)을 추구하는 독특한 개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p>
(나)	

— < 보 기 > —

ㄱ. A: 인간만이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삶의 주체인가?

ㄴ. B: 지각과 의식을 가져야만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판정될 수 있는가?

ㄷ. C: 내재적 가치를 지닌 모든 동물은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가?

ㄹ. D: 인간에게는 생태계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있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7. 다음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랑은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사랑의 기본적 요소들인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한 요소들은 성숙한 인간, 즉 내적 힘에 바탕을 둔 겸손한 사람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다.

— < 보 기 > —

ㄱ. 사랑은 상대방을 나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ㄴ.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참된 이해에 의해 인도되어야 한다.

ㄷ. 사랑은 상대방에게 적극적 관심을 갖는 능동적 활동이다.

ㄹ.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외경으로써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현대 과학 기술이라는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새로운 윤리학이 요청됩니다. 새로운 윤리 원칙은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와 그에 대한 공포로부터 도출되며, 그것은 "지상에서 인류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제 조건을 위협하지 말라."라는 생태학적 정언명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 ① 생명체가 지닌 고유한 목적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
- ② 현대 과학 기술의 힘은 인간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 있다.
- ③ 윤리적 책임의 대상을 지구 생태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 ④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을 져야 하는 당위를 수반한다.
- ⑤ 인간보다 생태계를 우선하는 새로운 윤리를 정립해야 한다.

9. 갑, 을 사상가들의 옳은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이 양심에 어긋날 경우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즉시 어기는 것이 옳다.

을: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겨난다. 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정책이 정의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할 때 다수의 정의관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 < 보 기 > —

ㄱ. 갑: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인 청원이 수용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이루어져야 한다.

ㄴ. 을: 공동체의 정의감이 시민 불복종 정당화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ㄷ. 을: 시민은 심각한 불의에 대해서만 저항하되 평화적으로 해야 한다.

ㄹ. 갑, 을: 정치 체제의 변혁이 시민 불복종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다음 사상가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집은 인간 삶의 중심이며 요람이다. 집은 인간의 삶을 한 곳에 뿌리내리게 하고, 세계와 우주로 열리는 통로이다. 우리는 집에서 휴식하며 안정을 얻고, 보다 크고 넓은 삶의 장소로 진입한다. 인간에게 주는 편안함과 한 장소에 뿌리내리게 해 주는 힘을 바탕으로 집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삶의 터전인 동시에 확고한 중심으로 작용한다.

— < 보 기 > —

ㄱ. 집은 거주자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ㄴ. 집은 보다 넓은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중심이 된다.

ㄷ. 집은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한 공적 영역이어야 한다.

ㄹ. 집은 공간을 분할하여 인간을 내부에 가두어 놓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11.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이주민 문화를 주류 문화에 편입시켜야 한다. 개별 문화를 인정하면 사회는 갈등과 혼란에 빠지기 쉽다.
 (나) 이주민 문화와 기존 문화를 평등하게 인정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들이 어우러질 때 사회적 갈등이 해소된다.

- X: 문화 간의 위계를 강조하는 정도
- Y: 타 문화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중시하는 정도
- Z: 여러 문화의 공존과 화합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우리는 육체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영혼만을 사용하여 참된 실재를 인식할 수 있다.
 을: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는데,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기 때문이다.

- ① 갑: 죽음 이후에는 모든 영혼의 활동이 정지된다.
 ② 갑: 죽음 이후의 세계를 고통의 세계로 보아야 한다.
 ③ 을: 죽음 이후에도 불멸의 영혼이 존재한다.
 ④ 을: 죽음은 참된 지식을 갖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⑤ 갑, 을: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13.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 인권 침해라고 해서 모두가 국제적 무력 사용의 명분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정부가 시민들을 대량 학살하거나 노예화할 때는 현지 대응을 기다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무력으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은 개전(開戰)에 있어 정의롭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전시 행위와 그 최종적 결과에 있어 정의로워야 한다.

관점	학생				
	갑	을	병	정	무
전쟁 수행 과정의 정당성은 전쟁 동기의 정당성에 의해 결정된다.	✓			✓	✓
인권 침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		✓	✓
전쟁의 동기와 과정이 정의롭더라도 전쟁의 결과가 정의롭지 않을 수 있다.		✓	✓	✓	
무력 개입은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당사국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4.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원칙에 따라 사회적 기본 가치가 분배될 때 그 분배는 정의롭다.
 을: 재화의 분배는 유용성의 원리에 따라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에 기여할 때 정의롭다.
 병: 개인은 자신의 타고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다. 재화의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정당하면 그 보유 상태는 정의롭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

< 보기 >

ㄱ. A: 최소 수혜자를 위해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를 차등 분배해야 한다.
 ㄴ. B: 재화 분배의 공정성 여부는 절차보다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ㄷ. C: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득 재분배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ㄹ. D: 자연적 우연성을 활용하여 재화를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사이버 공간에서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다양한 자아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자아는 현실에서의 새로운 자아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을: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자아들은 현실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파편화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자아 정체성 형성을 저해한다.

- ① 갑: 사이버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② 갑: 사이버 공간의 자아는 현실적 조건을 극복할 수 있다.
 ③ 을: 사이버 공간의 자아는 정체성 형성을 어렵게 한다.
 ④ 을: 사이버 공간에서 자아들은 유기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
 ⑤ 갑, 을: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수의 새로운 자아가 형성된다.

16.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갑 : 자연은 결코 단순한 자연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종교적 의미로 총만해 있다. 왜냐하면 우주는 신의 창조물로 성스러움이 드러난[聖顯] 것이기 때문이다.

을 :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세계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관찰 가능한 우주의 배후에 숨어 있는 초자연적인 창조적 지성은 없다.

◎ 학생 답안

갑은 ㉠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존재라고 보며, ㉡ 신은 인간의 심리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을은 ㉢ 불충분한 증거를 토대로 세계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 초월적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편 ㉤ 갑은 을과 달리 인간은 체험을 통해 신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7.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신은 사람들에게 각자 해야 할 일들을 정해 주셨다. 사람은 충실한 직업 생활을 통해 신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며, 자신의 부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을 :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생계를 위해 임금을 받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외가 발생한다. 기술적 분업의 확대는 노동자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

- ① 갑 :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
 ② 갑 : 신의 영광을 위해 세속의 직업에서 떠나야 한다.
 ③ 을 : 기술적 분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④ 을 : 생산 수단의 공유를 통해 인간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⑤ 갑, 을 : 노동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형벌일 뿐이다.

18.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군자의 효는 집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집안에서의 효가 온 세상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 어른과 어린이는 하늘이 내려 준 질서이다. 형이 형 되는 까닭과 아우가 아우 되는 까닭에서 어른과 어린이의 도리가 비롯된다.

- ① 이웃 사랑을 출발점으로 하여 가정에서 효를 실천해야 한다.
 ② 장유의 도리를 가족 관계 내로 한정시키지 말아야 한다.
 ③ 부모뿐만 아니라 형도 공경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④ 동일한 세대인 형제 간에도 위아래를 구분해야 한다.
 ⑤ 가깝고 먼 정도를 분별하여 예를 행해야 한다.

19. 다음 인체 실험 원칙에서 볼 때, <사례> 속 K에 대한 옳은 평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인체 실험은 과학적으로 적절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수행해야 하며, 실험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

○ 피험자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야 하며, 가능한 한 피험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해악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례>

임상 실험을 담당하는 의사 K는 개발 중인 신약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신약을 투여하였다. 그 결과 많은 환자들이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었다.

< 보 기 >

ㄱ. 피험자에게 적절한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므로 옳지 않다.
 ㄴ. 피험자에게 실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옳지 않다.
 ㄷ.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실험을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ㄹ. 실험자의 이익을 피험자의 이익보다 우선했으므로 옳지 않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갑, 을, 병 사상가들이 서로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 질서 정연한 사회는 고통 받는 사회를 도와야 한다.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들 간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

을 : 모든 사람들의 이익은 지역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원조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 만민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병 : 자유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 원조를 강요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갖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①	갑이 을에게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빈국에 원조를 해야 함을 모르고 있다.
②	갑이 병에게	자유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원조의 주체임을 간과하고 있다.
③	을이 갑에게	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원조의 목적이 아님을 간과하고 있다.
④	을이 병에게	개인이 아니라 정부가 원조의 주체임을 모르고 있다.
⑤	병이 을에게	빈곤한 사람에 대한 원조는 자발적 선택 사항임을 간과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